

## 局外者 로서 最近의 「카프」에 對하야[제3회, 全3回]

黃郁

第一 첫째 카프의 各□□□은 各自自身을 더욱 進歩시키기 爲하야, 卽 自己完成을 爲하야 絶大의 努力을 다하야 할 것이다. 倫理的으로 보아 自身을 굳게 지키며 技術的으로 보아 自己修練을 熱心히 하야, 한 개라도 더 많은 作品을 發表하기에 全心力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勿論 오직 노동大衆을 가장 생각하므로 써만 可能한 것이다. 같은 인테리라도 그 生活을 본다면, 藝術部門에 잇는 사람들의 生活이 가장 「單一즈」하고 가장 怠慢한 點이 많은 것은 藝術 對 自身을 또한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私生活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할는지 모르나, 그러나 全生活을 일에 바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그 爲에 成功할 것인가? 더욱이 藝術과 같은 어려운 일에 잇어서 이랴. 自己의 人格과 技術의 完成이 없이 보다 좋은 作品을 보다 많이 쓸 수도 없겠지만, 그보다도 새로운 作家의 指導와 獲得은 不可能한 것이다. 「카프」 □□中에서 自己의 意見이 幹部의 그것과 다르다 하야, 스스로 물러 앓아 獨善主義를 謳歌하는 것 같은 非明□的 人物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리 인테리들의 일이라 하지만 대단 嫌厭한 일이다. 인테리의 「일」은 우선 自己의 意識確立에서부터, 카프의 擴大는 카프盟員의 自己修練에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한다.

그다음 카프는 어떠한 手段과 經路에 依하야서든지 어떠한 困難과 困窮이 잇든지 어떤 意味에서든지의 □□□를 가져 주기를 바라서 마지않는다. 그 必要는 여기서 區區히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大衆과의 接觸은 길이 맥히는 것이요, 카프의 文章은 프로 階級이 보지 못하는 프로文學으로 終始하고 말 것이다. □□□없는 「카프」는 「언장을 숙으린 것」이 아니라, 언장을 읽어 버린 것이 었었다. 더욱이나 그 創作이 보다 많이 生産되기 爲하야서의 外장큰 原因이 될 것이다. 無氣力한 인테리는 恒常무엇엔가

□使되지 않으면, 곧 怠慢에 빠지는 것은 우리 自身도 恒常經驗하는 바이니 만치 機□□□는「多作」을 爲해야 絶對必要한것이다.

第三으로 카프는 그 宗派主義를 버리고, 解放運動에 好意를 가지고 接近을 應하는 優秀한 作家들을 直接으로 加□시키든가 間接으로 個人的으로 緊密한 影響下에다 □든가 하여, 그들로 하여금 完全히 카프의 일을 理解하고 意識的으로 ××의 作品을 創作하는데까지 引導하도록 積極的으로 活動하는 同時에 그러치 않은 境遇에는 그 作品을 紹介하며 利用하도록 함이 옳을까 한다. 이것 또한 우리의 藝術에 목마름을 救해줄 한 가지길이 아닌가한다.

그 다음으로는 作品의 質에 關한것이니, 나의 생각으로 하면 過度히 政治的인 作品보다도 過度히 藝術的인 作品은 더욱 非 階級的이다. 勿論 藝術的인 아닌 作品이 아닐 것이나, 警戒할것은 現在의 大衆의 文化程度를 생각지 않고 藝術性만을 찾는 것이니, 그것은 ××××에서의 逃避를 나올 念慮를 充分히 가졌고, 또 現在에 그런 傾向을 떠우는 이도 벌써 잇는듯하다. 우리는 百개의 藝術性적은 카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참을지언정 한 개의 □□□作品이 카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못 볼 것이다. 아니, 現下의 一般運動과 背觸되는 內容의 作品이 나타난다 해도 오히려 不愉快할 것이다. 그러므로 作家들은 恒常 讀者와 大衆과의 接觸에 依하여 大衆의 生活과 意識을 把握하며 實際運動의 趨勢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作品의 이야기가 最大限 노동자 農민의 現實 그대로를 그리여 讀者의 理解를 便케하여 直接的으로 讀者의 情緒에 訴할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用語에 있어 서도 노동중 사람들의 쓰는 말을 使用하여야 될 것이다. 作家自身の 作品을 쓰지 말고 노동××의 作品을 쓸 것이다. 生硬한 文句의 羅列과 途中에 理論論爭을 展開함과 같은 것은 가장 注意할것이 아닌가 한다.

勿論 作品은 어디까지 現實에만 拘칠것이 아니요, 理論的인 イデオロギ-를 주는데 拘칠 것도 아니요, 무엇보다도 情緒的인 衝動을 주는, 一種理想主義的인 作品이어야 좋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筆者가 생각하는 것은 카프는 지금까지로 본다면 그것은 全혀 인테리들만의 組織이다. 이것은 카프의 한 致命的인 傷處이어나와, 카프는 組織上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文藝를 政治와 같이 볼 수 없는 만치 또 人테리를 노동者같이 볼 수도 없는 것이니, 너무 緊密한 組織을 가지라면 돌이켜 弊가 생길 것이다. 이것 또한 一個의 常識이지만 깊이 注意할 點인가 한다.

以上の 여러 가지 筆者의 要求는 作家 乃至 藝術家의 圈外에 잇는 사람으

로서의 誤謬와 無理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나, 그러나 또한 外部의 意見을 들어보는 것은 當局者에게 參考되는것이 많을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敢히 이 글을 써보기로 한 理由이다. 끝으로 바라는 것은 너무 先進國의 理論을 輸入하는데 急하여 國內의 情勢를 無視하고 先進國을 模倣(?)하다가 쓸데 없이 그 缺陷만을 선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얏으면 하는 것이다. 카프 解消와 거기 對한 理論 더욱이 「킬포-친」의 그것은 藝術至上主義에 빠지기 쉽고 또 組織上에 있어서는 作家를 分散시키고, 그 閱團體的 活動과 教育的 任務를 너무 일즉 내버리는 弊를 가져 오기 쉬운 點이 많은가 하여 여기에 이 國粹主義的 希望을 되풀이하여 두기로 한다.(끝)